



## 국내 생명보험산업의 경쟁심화 가능성

채원영 연구원

- KB금융의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가 무산된 이후 재매각과 IPO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생명보험산업의 경쟁구도 재편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음.
  - ING생명 한국 법인은 2012년 12월 KB금융으로의 매각에 실패한 후 적극적으로 재매각 대상자를 찾는 동시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.
    - KB금융그룹의 인수 무산의 표면적인 원인은 생명보험산업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의문이었음.
  - ING그룹은 2013년 1분기 내에 재매각 또는 IPO 등 ING생명 한국법인의 향후 진로를 결정할 예정임.
    - ING그룹은 유럽연합(EU) 집행위원회로부터 2012년 11월 자회사 매각 시한을 연장 받았는데, 아시아의 보험·자산운용 사업지분은 2013년 말까지 50% 이상을 매각하고 나머지는 2016년 말까지 매각하기로 하였음.
    - 매각 시한은 연장이 되었으나 한국법인의 매각이 필수적인 상황이므로 재매각 시도는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.
  - 이와 동시에 ING생명 한국법인은 기존의 영업력과 브랜드 파워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부 점검과 내실 관리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음.
    - ING생명 한국법인은 2012년 매각 추진 과정에서 인력과 영업조직 이탈이 심화되었으며 노조는 고용보장과 임금 보전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진행하였음.
    - 이에 ING그룹은 TF를 구성하여 영업조직을 재정비하고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할 예정임.
  
- ING생명 한국법인을 국내 생명보험회사가 인수할 경우 국내 생명보험 산업의 대·중소형사 간 양극화는 심화될 것으로 보임.
  - WSJ에 따르면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에 한화생명, 교보생명, MBK파트너스가 관심을 보이고 있음.

- 2013년 2월 7일 거래소 공시에서 한화생명은 “ING인수의 타당성을 검토 중이나 현재 확정된 내용은 없으며 이와 관련해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”고 밝힘.
  - ING생명 한국법인이 한화생명에 인수될 경우 업계 시장점유율 1, 2, 3위인 삼성생명, 한화생명, 교보생명의 시장점유율은 인수전 50.9%에서 54.3%로 증가하여 대형3사의 시장지배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.
  - ING생명 한국법인이 한화생명에 인수될 경우 업계 2위가 확실해지며 주력 상품이 다양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    - ING생명 한국법인은 삼성생명에 비견될 정도의 고액 변액보험 등을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음.
- **중소형 생명보험회사들은 기업이미지 제고와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하고 있음.**
- 동양생명은 2012년 5월 한화생명으로의 매각이 무산된 후 경영정상화에 주력하며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경쟁심화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.
    - FY2012년 1~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48.7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.
    - 2012년 한화생명의 인수가 무산된 후 경영정상화에 주력한 결과로 평가됨.
    - 또한 동양생명은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2013년부터 자사 브랜드 ‘수호천사’ 이미지 강화를 위한 캠페인을 펼치는 등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주력하고 있음.
  - 현대라이프는 보험상품 혁신을 통해, 그리고 미래에셋생명은 수수료제도를 개편하여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전략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음.
- **저성장-저금리 장기화가 전망되며 생명보험산업의 성장 전망이 불투명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M&A, 유기적 기업가치제고, 소비자 신뢰 제고를 통한 보험산업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나 생명보험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**
- 소비자 지향적 상품의 출시와 수수료 체계 개편을 통한 소비자 만족도 제고 전략이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(WSJ, 매일경제 등)